

코웨이 품은 웅진그룹, 태양광 부진에 '에너지' 버릴까

웅진에너지 적자 누적에 '부도' 산업은행 등 채권자 협의 진행
코웨이 매입 탓에 자금 부족해 "상장 폐지는 막아달라" 호소도



컨게임'이 계속되면서 웅진을 제외한 모든 기업이 관련 사업에서 철수하거나 계열사를 매각했다.

웅진에너지가 업계에 남아있던 마지막 회사였던 셈이다.

하지만 결국 웅진에너지도 재무상태 악화가 누적되며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웅진그룹은 태양광 모듈을 위한 1단계 원자재인 폴리실리콘 생산회사인 웅진폴리실리콘을 2008년 설립했다 이후 그룹 사태가 발생하면서 매각한 바 있다.

웅진폴리실리콘에 이어 웅진에너지까지 처리 수순에 들어가면서 웅진그룹은 태양광 사업에서 전면 철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았다.

8월 관련업계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1658억원의 매출을 올린 웅진에너지는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에서 각각 마이너스 561억원,

마이너스 1118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그러면서 감사를 받았던 한영회계법인인 감사보고서 '거절의견'을 제출했다. 중국의 대규모 물량공세로 이익창출능력이 현저하게 감소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히 이로 인해 연말에 돌아올 차입금과 사채 상환도 어려워 계속기업으로 불확실성이 높다는 판단도 내렸다. 또 한영측은 웅진에너지가 갖고 있는 기계장치 등 유형자산 가치에도 손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자본잠식률(자기자본 대비 자본금의 비율)이 50%를 넘으면 관리종목 지정 사유에 해당되고, 이렇게 되면 웅진에너지가 자금 조달을 위해 앞서 발행한 회사채에 대한 '기한이익상실'이 불가피하다.

기한이익상실이란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신용위험이 높아질 경우 만기가 돌아오기 전에 대출금을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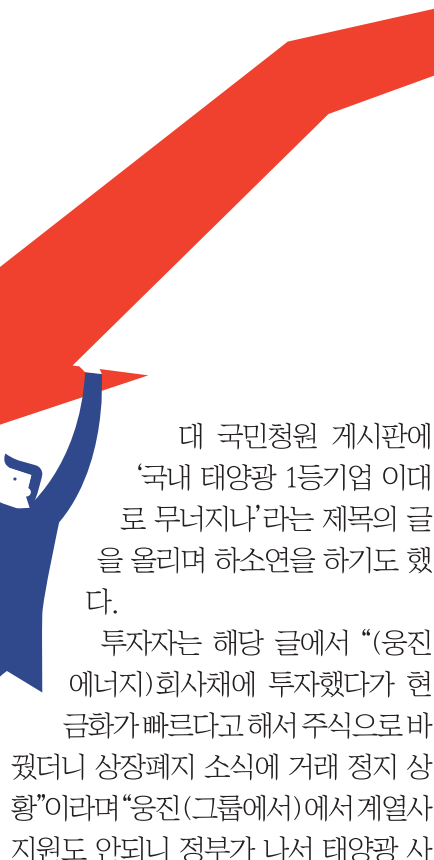
웅진에너지에 대한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 등 채권단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게 현재 웅진그룹측의 공식 입장이다.

웅진그룹은 수년전부터 상황이 악화된 웅진에너지를 살리기 위해 주주배정 유상증자 등을 통해 1000억원 가까운 자금을 쏟아부었다. 웅진에너지는 웅진그룹 지주사인 ㈜웅진이 26.69%로 대주주다. 윤석금 회장의 두 아들인 형덕씨와 새봄씨도 일부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웅진은 그동안 그룹 회생에 주력해온데다 코웨이를 사들이기 위해 많은 자금을 조달한 만큼 총알이 부족한 상태다. 특히 웅진에너지가 영위했던 사업 부문에 비전이 없다는 점이 대주주로서 더 이상 손을 댈 수 없게 만들고 있다. 지금 시점에선 밑빠진 독에 물을 붓기보단 꼬리를 자르는 것이 최선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웅진에너지 처리과정에서 채권과 주식에 투자한 일반인들의 피해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실제 한 투자자는 지난달 30일 청와



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국내 태양광 1등기업 이대로 무너지나'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하소연을 하기도 했다.

투자자는 해당 글에서 "(웅진에너지)회사채에 투자했다가 현금화가 빠르다고 해서 주식으로 바꿨더니 상장폐지 소식에 거래 정지 상황"이라며 "웅진(그룹에서)에서 계열사 지원도 안되고 정부가 나서 태양광 사업이 일어나고 웅진에너지가 상폐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웅진에너지에 대한 채권단의 결정은 빠르면 이달 안에 나올 전망이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메쉬코리아-매스아시아

전기자전거 활용 '배송 서비스' 협력

'부릉(VROONG)'을 운영하는 메쉬코리아는 개인형 이동수단 공유 서비스를 운영하는 매스아시아와 전기자전거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매스아시아는 국내 최초 공유자전거 서비스를 시작한 스타트업으로 최근 공유 전기자전거, 전동 킥보드, 자전거와 같은 퍼스널 모빌리티를 공유하는 통합 플랫폼인 '고고씽'을 론칭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전기자전거를 활용한 배송 서비스 협력에 주력할 계획이다. 특히, 매스아시아가 자체 개발한 PAS(Pedal Assist System)형 모델은 배송 서비스에 최적화된 전기자전거로 5월부터 서울 수도권 일대에서 배송 테스트를 진행해볼 예정이다.

매스아시아한완기·정수영 공동대표는 "국내 IT 기반 물류 스타트업인 메쉬



메쉬코리아 박준규 COO(왼쪽)와 매스아시아 정수영 공동대표가 전기자전거를 이용한 배송 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코리아와의 이번 MOU 체결은 개인형 공유이동수단 서비스 시장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물류와 교통이 만나고 경계가 허물어지는 것은 또 하나의 융합적인 비즈니스가 탄생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성공적인 제휴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중기부·무역협 중소기업 홍보영상 제작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무역협회가 중소기업의 제품 홍보 동영상 제작부터 해외 마케팅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중기부와 무역협회는 '온라인 전시회 사업' 참가기업을 15일까지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IT기기 및 부품소재 100개 회사와 스마트 헬스·뷰티케어 100개 회사를 모집한다. 최종 선정된 기업은 맞춤형 스토리텔링 영상 콘텐츠 제작을 지원받는다.

영상 콘텐츠는 무역협회가 운영하는 기업간 거래(B2B) 온라인 플랫폼 '트레이드코리아'와 페이스북, 인스타



그램,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을 통해 전 세계 바이어에게 노출된다. /배한님 기자 ericbae1683@

공기청정기 관련 소비자 상담 3배 ↑

한국소비자원·한국소비자단체협
"지난해보다 92.9% 증가"
폭염 대비 에어컨 상담도 2월比 111%

최근 판매율이 급상승 중인 공기청정기와 에어컨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배송 지연, 재고 부족에 따른 계약 취소를 비롯해 설치 불만도 컸다.

한국소비자원은 1372소비자상담센터가 운영하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에 접수된 소비자상담을 분석한 결과, 지난 3월 전체 상담 건수가 전월 대비 20.6%가 증가했다고 8일 밝혔다.

배송 지연, 재고 부족에 따른 계약 취소 등 공기청정기에 관한 상담 건수 증가율이 높았고, 설치 불만에 따른 에어컨

의 상담 건수 증가율도 높았다.

지난 3월 소비자상담은 5만9941건으로 전월(4만 9692건) 대비 20.6%(1만 249건)이 늘었다.

특히 전월 대비 소비자 상담이 크게 늘어난 품목은 공기청정기(191.4%), 에어컨(111.5%), 원피스(104.2%) 등의 순이었다.

최근 미세먼지 악화로 수요가 늘어난 공기청정기의 경우 배송이 지연되거나 계약이 취소되는 사례와 함께 과장 광고로 인한 품질 불만 등에 관한 상담이 많았다. 에어컨 역시 계약 시 사전고지가 되지 않은 설치비, 출장비 등 추가 비용 청구와 전선·배관 파손 등의 불만이 많이 접수됐다.

월간 상담 접수가 200건 미만이지만 증가율이 높은 품목은 전년 동월 대비

'염색제', '아동복', '헤드폰'이, 전월 대비 '숙녀복상', '아동복', '이·미용서비스'이 많았다.

소비자상담은 30대가 1만7166건(30.8%)으로 가장 많은 연령대였고, 40대 1만5210건(27.2%), 50대 1만369건(18.6%) 순이었다. 또 여성 소비자의 상담이 54.8%(3만2846건)로 남성(2만 7095건) 대비 9.6%p 높았다.

상담 사유로는 '품질·AS'(26.6%), '계약해제·위약금'(20.9%), '계약불이행'(15.3%)과 관련한 상담이 전체의 62.8%를 차지했고, 일반판매(52.0%)를 제외한 판매방법 중에서는 '국내 전자상거래'(25.3%), '방문판매'(4.6%), '전화권유 판매'(3.4%)의 비중이 높았다.

/박민용 기자 parkiu7854@

중진공-신한은행

'내일채움공제' 업무협약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8일 서울 중구에 있는 신한은행 본점에서 '중소벤처기업 청년취업 및 장기재직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업무협약에 따라 9일부터 신한은행 700여개 영업점에서 내일채움공제 가입이 가능해진다.

2014년 8월부터 시작된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과 핵심인력이 공동으로 일정 비율을 적립, 5년 만기 재직 한 근로자가 본인 납입금 대비 3배 이상인 2000만원 이상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한 정책적 공제사업이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1만6000개 기업, 4만명이 가입했다.



중소기업 청년취업 및 장기재직을 위한 업무협약에서 안호열 신한은행 개인그룹장(왼쪽 세번째)과 김형수 중진공 일자리본부장(왼쪽 네번째)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진공

청년에 특화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근로자가 5년간 최소 월 12만원, 기업은 월 20만원을 각각 적립하고 정부가 첫 3년간 1080만원을 적립하는 사업이다. 5년 만기 재직 후 본인 납입금 대비 4배 이상인 3000만원 이상을 수령할 수 있다.

지난해 6월 시작된 사업으로 지난달 기준으로 1만7000개 기업, 4만7000명이 가입했다.

중진공 김형수 일자리본부장은 "내일채움공제 가입창구를 다양화해 공제가입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고, 청년 일자리 대책인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도약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